

# 쟁기(犁)속에 비친 민속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

정 연 학\*

## 목 차

- |             |                  |
|-------------|------------------|
| I. 머리말      | 3. 쟁기와 풍년 의례     |
| II. 본 론     | 4. 이야기(故事) 속의 쟁기 |
| 1. 쟁기와 일상생활 | 5. 보습과 벅의 문구     |
| 2. 쟁기와 신앙   | III. 결 론         |

## I. 머리말

쟁기는 나무나 철로 만든 공구이지만 단순한 농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쟁기에 의지해 갈이를 하고, 그 갈이의 결과로 곡식을 거둬들여 생활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쟁기는 농민을 도와주는 보조자이자 친구이자 형제인 것이다. 또한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물건인 것이다. 당나라 때 농서(農書)였던 『뇌사경(耒耜經)』에서도 쟁기가 농민이 생활하는데 필수품임을 강조하고 있다(耒耜(即犁)者···自乃粒以來至于今, 生民賴之).

쟁기갈이(犁耕)는 흙을 부드럽게(土松化) 해주고, 수분과 공기의 유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묘목(苗木)이 잘 자라게 해준다. 또한 흙밥의 반전을 통하여 표면 위의 토양을 살찌게(肥力) 만들어 주고, 표면에 있던 나무뿌리나 잡풀, 잎 등의 유기물을 땅속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토양을 거름지게 만든다. 즉 갈이는 풍년을 기약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농기구가 쟁기인 것이다.

쟁기는 농기구를 대표하며, 일상생활에서는 농기구가 아닌 독특한 상징물로서 양면성을 가진다. 이 글에서는 사람들의 생활, 습속, 제도 등에서 발견되는 쟁기와 관련된 민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

## II. 본론

### 1. 쟁기와 일상생활

#### 1) 가장 중요한 농기구

가장 중요한 농기구가 무엇이나? 고 물어보면, 농민들은 서슴지 않고 쟁기라고 말한다. 쟁기는 농기구 중에서 크기도 제일이지만, 만들기도 어렵고 아무나 다룰 수 없는 연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 해 농사가 쟁기질로부터 시작되기에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농가(農家)에서 “소 없이는 농사 못 짓는다”고 이르는 말도 쟁기를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1969년 김광언의 농기구 개인 보유량 조사표에 의하면 쟁기는 매 집마다 보유하고 있으며 두 틀 이상 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다<sup>1)</sup>.

우리나라는 ‘쟁기의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용하는 장소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쟁기를 썼다. 특히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논, 밭갈이에 따라 다른 쟁기가 썼을 뿐만 아니라 잡풀을 제거하고 복을 주는 데(후치), 두둑을 놓이는데(가대기), 물이 많은 논갈이에(무리) 등등 갈이에서 제초작업까지 쟁기를 썼다. 오늘날 만주의 조선족들이 감자를 깨내는 일에도 후치를 쓰는 것을 보면 쟁기는 수확까지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쟁기·연장·가대기·후치 등을 모두 가지고 있다.

#### 2) 성년식

농촌의 젊은이가 “장가 들만한 자격”의 기준을 쟁기 부리는 기술에 두었던 것은 쟁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장가 못간 총각들에게는 “연장이 나빠서 못간다”고 놀리기도 한다. 연장은 쟁기이지만 여기서는 남자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생식기가 성숙하지 않았듯이 쟁기 부리는 기술이 부족해서 가족들에게 밥 먹일 생활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쟁기질을 할 줄 아느냐에 따라 머슴의 대접이 달라졌는데 오늘날 성년식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어린 머슴(‘입갈이’ 또는 ‘젓머슴’이라고 부름)이 쟁기를 부릴 줄 아는 중머슴이 되면서 새경 등을 받는다. 또한 ‘머슴생일’이라고 하는 백중에도 주인으로부터 옷과 막걸리 값을 받을 수 있었다. 중국에서도 쟁기는 개인의 능력을 재는 잣대로 삼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세살 먹은 아이도 쟁기를 부릴 줄 안다(三歲小孩會扶犁)”고 빈정거린다.

1)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17-23쪽.

### 3) 기본 연장의 대명사

쟁기는 때로는 전체 농기구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해서 한국의 강원도 일대에서는 낫이나 도끼처럼 날이 달린 연장을 ‘날쟁기’라 이르고, 석수는 자기가 만든 쟁기를 ‘땃들쟁기’라고 부른다<sup>2)</sup>. 서해안의 어부들은 그물을 바다에 넣거나 낼 때 ‘쟁기 넣는다’, ‘쟁기 거둔다’고 이른다<sup>3)</sup>.

### 4) 부자, 부강(富強)의 표시

쟁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릴 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쟁기의 수는 개인의 부유(富裕) 정도를 나타내는 표본으로 삼기도 한다. 만주지역의 대농(大農)이 6틀의 쟁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중농(中農)과 소농(小農)은 4틀의 쟁기를 가지고 있다<sup>4)</sup>. 근래에도 하북성(河北省) 란평현(灤平縣)의 쟁기의 실태를 보면, 소가 있는 부유한 집에서만 쟁기를 가지고 있을 뿐 가난한 집에서는 사람이 끄는 인걸이(人力犁)만 가지고 있다. 이것은 소와 쟁기, 재산과 소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 5) 무기

쟁기는 전쟁 때는 무기로 사용되었다. 기원전 6세기경 에트루리아의 한 유골항아리에는 마라톤 용사가 쟁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있고, 고대 이스라엘 유태교 신관(神官)들은 쟁기를 무기로 싸웠다는 기록이 있다<sup>5)</sup>. 한국의 쟁기의 고어(古語)인 “잡개”는 병기를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sup>6)</sup>. 중국의 농업 속담에도 쟁기를 무기로, 토지를 전쟁터로 비유하기도 한다.

### 6) 강우량의 측정

예전에 강우량을 측정할 때, 사람들은 같이 한 땅의 비를 보고 그 양을 측정하였다. 땅을 가른 깊이만큼 비가 온 것을 “일리우(一犁雨)”라고 말한다. 중국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비가 일리우(一犁雨)만큼 왔다’ 또는 ‘일리우(一犁雨)만큼 오지 않았다’라고 말한다<sup>7)</sup>. 일리우(一犁雨)는 같이하고 파종하기에 적당한 비의 양으로 산서성(山西省)과 동북 3성(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에서는 그때 같이와 파종을 한다. 산서성에서는 미리 땅을 갈아 놓고, 비가

2) 金光彦, ‘韓國의 쟁기 研究’, 『한국문화인류학』 1989 제 21집, 79쪽.

3) 김광언, ‘농기구의 상징성’, 『博物館誌 2』, 인하대학교박물관, 1997, 18-19쪽.

4) 『滿洲の在來農具』(農事試驗場彙報 第 29號),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30, 부록.

5) 朴虎錫, ‘東西洋 쟁기의 起源과 發達’,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2쪽.

6) 崔範權, ‘韓國 農器具 語彙考’, 『韓國의 農耕文化』 제 2집, 京畿大出版局, 1987, 45-71쪽.

7) 蘇舜欽, 『田家詞』: “山邊夜半一犁雨, 田父高歌待收穫”.

오면 바로 씨레질을 하고 파종을 한다. 동북 3성에서는 비가 오는 날 쟁기질을 한다. 이것은 건조한 기후인 이들 지역이 수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경작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7) 기타

쟁기는 유산의 품목으로 설정되기도 하였고, 중국 절강성(浙江省)의 여족(畬族)들은 신부의 중요한 혼수로 준비하였다. 부유한 집에서는 쟁기뿐만 아니라 소도 가져가는데 이것은 '근면하게 일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쟁기는 마을을 상징하는 깃발에 그려 놓아 농촌을 대표하는 농기구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산둥(山東)지방에서 민요를 부를 때 반주에 쓰이는 반달형 악기를 '리화판(梨花板)' 또는 '리화간(梨花簡)'이라고 부른다. 최초에 이 악기는 부서진 쟁기 보습 조각을 이용해 만들었기에 '리화판(犁鏵板)'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으나, '리화판(犁鏵板)'과 동음인 '리화판(梨花板)'으로 바꾸어 우아하게 부르게 되었다. 일본의 야채 전골을 이르는 '서소(鋤燒)'라는 말은 쟁기의 벼를 고기를 굽는 판으로 쓴 데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

쟁기의 보습은 약으로 쓰인다. 산둥성 문등시(文登市) 왕동진(汪瞳鎮)에서는 쟁기의 보습에서 떨어진 녹과 참기름을 섞어 고름이 생기는 상처에 바른다. 실제로 중의(中醫)에서는 쇠를 단련할 때 떨어진 조각인 '철락(鐵落)'을 약으로 쓴다.

쟁기는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운남(雲南) 광남현(廣南縣) 봉암동촌(峰岩洞村)의 어느 아버지는 딸의 장난감 선물로 만들어 주었다<sup>8)</sup>.

## 2. 쟁기와 신앙

흙밭을 반전시키는 벼는 거울에 빗대어 중국 산둥성 몽음현(蒙陰縣)에서는 '리경(犁鏡)', 산서성 양성현(陽城縣)에서는 '경면(鏡面)'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벼가 사용할수록 거울과 같이 빛이 발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산둥성 몽음현에서는 벼를 방문에 걸어 귀신을 쫓는 벽사물로 쓰기도 하였다. 이때의 벼는 쟁기의 부속품이 아니라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거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신과 악귀를 쫓는 도구로 쓰여졌다. 중국 어느 지역을 가도 대문이나 용마루에 걸어둔 거울을 쉽게 볼 수 있다.

산둥성 몽음현에서 쓰는 벼는 산서성 양성현 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특이한 것은 벼 앞면에 일(日)과 월(月)자의 글씨와 도안이 새겨져 있고(사진 1), 뒷면에는 귀(鬼)자와 류(柳)자가 세로로 적혀 있다(사진 2). 해와 달은 농경신앙에서 중요한 숭배 대상으로, 음양의 원리에 따라 풍수(豊收)를 바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와 달은 밝음을 상징하기에

8) 尹紹亭, 『雲南物質文化』 農耕(上), 雲南教育出版社, 1996, 289쪽.

‘벽사(辟邪)’의 기능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신령의 거울이라는 무당의 명두(일월명두, 명도라고도 부름) 뒷면에 새겨진 일(日), 월(月)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사진 3).

벧 뒷면에 새긴 귀(鬼)와 유(柳)는 28개 별자리 중 칠성(七星)의 두 개의 별로서, 고대 점성술과 방위(方位)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점성술에서 ‘귀성(鬼星)’은 곡물의 풍수를, ‘유성(柳星)’은 양식의 풍부를 나타낸다<sup>9)</sup>. 결국 두 글자는 풍수를 기원하는 글자이다. 귀성(鬼星)과 유성(柳星)등은 지역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한다. 강화도 적적사(赤積寺) 지붕의 기와는 강화도와 유성(柳星)의 글자를 새겨 놓아 적적사가 유성의 별자리에 해당하는 곳에 있음을 나타내었다(그림 1).

귀(鬼)는 귀신, 유(柳)는 중국의 경우 신목(神木)으로 ‘광명벽사다산’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신성한 두 글자를 더함으로써 벧의 효율은 두 배로 증가 될 수 있고, 또한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 밝고, 부유한 집안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도 있다.

벧은 특별한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산서성(山西省)의 진성(晉城)에서 사용하는 벧은 ‘낙타얼굴(驢顏)’, 안휘성(安徽省) 지역의 벧은 ‘닭다리(鷄腿)’라고도 새겨 놓았다. 낙타얼굴이라고 부르는 벧은 다른 벧과는 달리 흙밥을 양쪽으로 가르는 것으로 낙타의 얼굴을 닮아서 생겨난 이름이다. 이 벧을 만주지역에서는 ‘탕두’라고 부른다. 닭다리 벧은 닭이 다리로 끈임 없이 땅을 헤치고 먹이를 찾듯이 이 벧도 것처럼 흙밥을 넘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닭의 발톱이 물건을 움켜잡으려는 모양이듯이 집안이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쟁기는 혼례의식에서 중요한 도구로 쓰인다. 산동성에서는 혼례 날 신랑집 대문에 쟁기를 놓고 신부로 하여금 넘어가게 한다. 불이나 말안장을 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신부를 따라 온 잡귀를 쫓는다는 의미이다. 민국(民國) 20년 『장갈현지(長葛縣志)』에는 ‘신부가 신랑집 대문을 지날 때 불에 달군 보습에 초를 뿌려 연기를 낸다’는 기록이 있다. 연기로 악귀를 쫓으려는 행위이다. 달군 보습은 환자의 병을 치료하거나 체벌하는 도구로 썼다. 중국 강족(羌族) 무당들은 1-2시간 불에 달군 보습을 가지고 환자의 주위를 돌아 병을 고치었고<sup>10)</sup>, 요족(瑤族)들은 죄인으로 하여금 불에 달군 보습을 들게 하였다. 일종의 화형(火刑)이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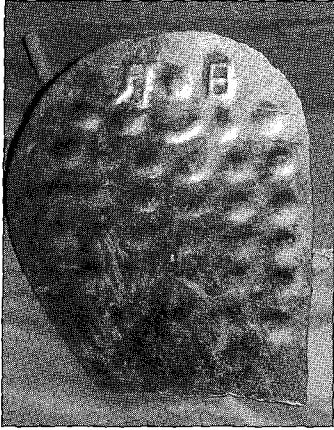
섬서성(陝西省) 중부지역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보습을 끼운 말뚝을 대문 앞에 세워 놓는다. 그리고 보습 위에는 붉은 보자기를 걸어 놓는다. 이것은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뜻을 가진 배태(胚胎)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배태(胚胎)에 나오는 불(不)자는 금석문에서는 꽃받침대의 형상이고, 태(台)자는 금석문에서 사(耜)의 오른쪽 글자 즉 보습을 가리킨다<sup>12)</sup>. 어찌

9) 『史記·天官書』注引“正義”，“鬼星明大，谷成”，“柳爲鳥注，主木草”，“柳爲朱鳥味，天之廚宰，主尙食，和滋味”(中華書局，1302-13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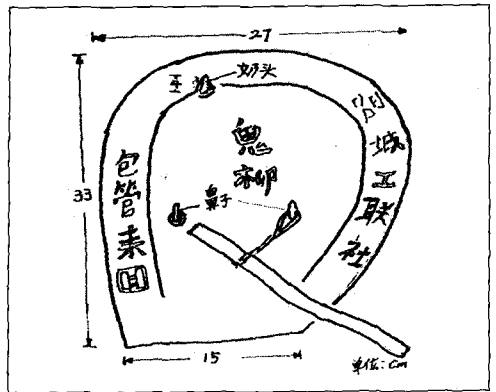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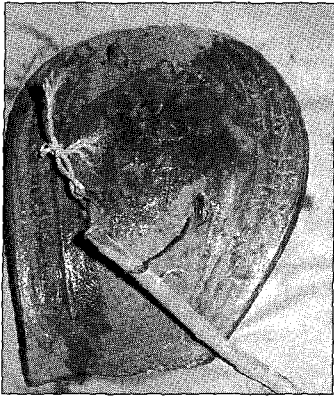
10) 『中國少數民族辭典』，內蒙古人民出版社，1994，308쪽.

11) 『中國少數民族辭典』，上揭書，2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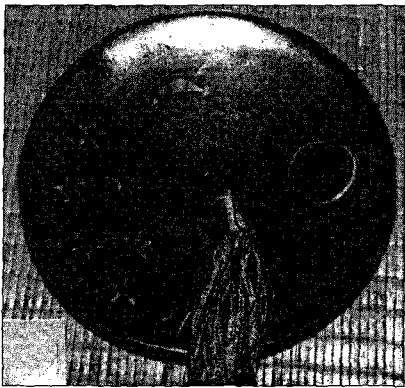
12) 邢莉 主編，『中國女性民俗文化』，中國檔案出版社，1995，1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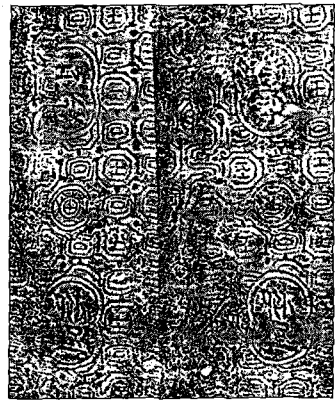
<사진 1> 범의 앞면과 해(日)와 달(月)을 나타내는 글씨와 도안  
(산동성 뭉음현)



<사진 2> 범의 뒷면(좌)과 문구, 그리고 크기(우). 귀신(鬼)과 버드나무(柳)는 풍성한 수확을 나타냄  
(산동성 뭉음현)



<사진 3> 명두에 새겨진 해·달·복두철성의 도안. 벽사의 의미를 가짐.



<그림 1> 기와에 새겨진 유성(柳星)·강화도(江花島)의 문구(탁본). '적적사가 강화도의 버드나무 별자리에 위치함'을 나타냄. 한편, 왕(王)·회(回)자를 연속적으로 표현한 것은 '적적사를 산신(王=호랑이)이 굶어 돌봐주신다'는 뜻임. (임학성 탁본 제공)

되었건 보습과 붉은 보자기는 벽사(辟邪)의 기능과 출생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광둥성 조양(潮陽) 지역에서는 가마에 보습 가루를 거는 것도 역시 벽사의 의미를 가진다<sup>13)</sup>.

중국에서는 쟁기에도 신(犁公公)이 깃 들어 있다고 믿으며, 2월 2일을 그의 생일이라고 믿는다. 이날이외에 쟁기를 수리하면 쟁기 보습이 부러진다고 한다. 만약 수리를 하여야만 한다면 소날(牛日) 하면 괜찮다고 한다. 우리네가 정월 첫 번째 소날 쟁기를 수리하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쟁기신은 태양신과 대적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쟁기 보습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같이 할 수 없다. 또한 쟁기질을 할 때 돌면서 하지 않고 똑바로 한 줄씩 한다. 돌면서 하면 남편은 거북이가 되고, 여자는 바람이 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쟁기는 뒷간에 보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쟁기신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다음 번 같이 때 보습이 자주 부러지고 수확도 감소하게 된다. 아이들도 쟁기에 실례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오줌을 늘 경우 큰 병이 생긴다고 한다. 그것은 쟁기의 재료가 쇠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줌을 누면 나무는 썩기 쉽고, 쇠는 녹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선달 그믐날 복(福) 또는 유(有)라고 쓴 종이를 쟁기 위에 붙여 두면 한 해 동안 부자가 될 운이라고 믿는다.

### 3. 쟁기와 풍년 의례

우리와 중국은 입춘이 되면 풍년을 바라는 의미로 쟁기로 밭가는 의식을 벌렸다. 이러한 풍습은 궁중에서 ‘내농작(內農作)’이라 하여 임금의 쟁기를 잡아 밭가는 시늉을 함으로써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신화에서 ‘우(禹)가 쟁기와 보습을 들고 사람들에게 술선 수범하였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관리, 농민들에게 전해져 민간에서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중국에서 음력 2월 2일은 ‘용이 머리를 드는 날(龍台頭)’<sup>14)</sup> 이라고 하며, “화조절(花朝節)”, “답청절(踏青節)” “도채절(挑菜節)” “청룡절(靑龍節)” “춘청절(春靑節)” · “춘용절(春龍節)” 이라고도 부른다. 이날 민간에서는 용왕,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농사의 시작을

13) 劉志文 主編, 『廣東民俗大觀』, 廣東旅遊出版社, 1993, 321쪽.

14) ‘용이 머리 드는 날’은 용이 행복을 하고 비를 내리게 해준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섬서성(陝西省) 중부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 몇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옥황상제는 이미 동해 용왕의 손자에게 비를 내리게끔 명령을 하였으나, 손자는 이를 잊어버린 채 용하(龍河)에서 놀뿐이었다. 물을 찾아 나섰던 수생(水生)이라는 젊은이는 이 사실을 듣고, 용하의 물을 흐르게 하여 물 속에 있던 용의 행복을 받아내어 머리를 들게 하였다. 그러자 삼시간에 검은 구름이 모이고 우레가 울고 번개가 치더니 비가 억수로 내리었다. 『연경세기(燕京歲時記)』에도 ‘이날 떡이나 국수를 하여 용에게 대접하고, 용의 눈을 찌르는 것이 격정되어 여인네들의 바느질을 금하였다’고 적고 있다.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벌린다.

산둥성 일조시(日照市) 동항구(東港區) 신유촌(辛留村)에서는 음력 2월 2일 ‘같이 시범(試耨)’이라는 의식을 벌린다. 농민들은 집에서 가까운 “춘지(春地, 봄에만 종자를 뿌려 가을에 거둔 후 놀리는 땅)”에서 그 해 재산신의 방향의 위치에 따라 곡식을 갈무리하는 통가리 모양으로 쟁기질을 한다. 예를 들어, 재산신의 위치가 서남쪽이라면 쟁기를 건 소를 맞은편 동북(東北)방향에 놓고, 소의 머리가 재산신(財產神) 쪽을 향하도록 한다. 그 다음 재산신이 위치한 서남쪽을 향하여 두, 세 차례 밭을 간 후, 시계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쟁기질을 한다(그림 2). 소가 원래의 위치에 도착하면 종이돈(紙錢)을 태우고 폭죽을 터트리며, 소에게 ‘한 해 동안 농사일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축원을 한다. 또한 밀가루로 만든 부침(煎)을 소에게 먹인다. 위와 같은 의식은 농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동시에 힘든 일을 앞둔 소에게 특별한 음식을 먹여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강서성 승의현(崇義縣)에서는 입춘 날 밭에서 향불을 피워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 남쪽 방향을 향하여 다섯 번 쟁기질을 한다<sup>15)</sup>. 청해성 토족(土族)들은 봄·가을같이를 하기 전에 길일(吉日)을 택해 먼저 신농(神農)에게 묘목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낸다. 밭을 먼저 동그란 모양으로 같이를 한 후, 원을 십(十)자로 다시 쟁기질을 한 후, 원과 십자선을 따라 파종을 함으로써 의식이 끝난다<sup>16)</sup>.

광서성(廣西省) 소수민족들의 봄같이 의식은 보편적이다. 장족(壯族)들은 구정 날 한 사람은 인걸이를 잡고, 앞의 두 사람은 성에 끝에 끈을 연결하여 끈다. 이때 줄을 끄는 두 사람은 춘관(春官)으로 분장하고, 각가지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의식은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의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봄같이(春耕)를 시작한다. 요족(瑤族)들도 이날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쟁기, 호미를 들은 사람과 소로 분장하여 거리를 다니며 쟁기질을 하는 의식을 한다. 흘료족(仡佬族)들은 입춘 전날 마을 동쪽에 모여 신선, 토지, 조상에게 제사를 올린 후, 쟁기 같이를 한다. 이때 사람들은 ‘봄이 왔다. 밭을 갈자’ 소리를 지르고, 소에게 채찍질을 세 번하고 노래를 한다. 족장은 이랑에 씨를 뿌리고, 봄같이(春耕)의 시작을 알린다. 그 이튿날 민가에서는 족장으로부터 받은 씨앗을 가지고서 다시 족장이 하였던 것처럼 쟁기질 의식을 한다. 이때에도 오곡신, 조상신에게 제를 먼저 올린다. 동족(侗族), 묘족(苗族)들은 이러한 같이 의식을 “기활로(起活路)”라고 부른다<sup>17)</sup>. 위와 같은 같이 의식은 종교적 성격이 강하며, 봄같이(春耕) 시기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이 시범’ 의식은 한국의 강원도 정선 남면에서도 “보냄”이라고 하여 행해졌다<sup>18)</sup>. 단지 산둥성과 다른 점은, 산동의 경우는 2월 2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져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봄

15) 余悅, 吳麗躍, 『江西民俗文化緒論』, 光明日報出版社, 1994, 301쪽.

16) 『中國少數民族民俗大辭典』, 前掲書, 301쪽.

17) 宋兆麟, ‘春牛圖探源’, 『中國歷史博物館館刊』, 1993年 第1期.

18) 金鎮順, ‘강원도지역 소모는 소리의 현장론적 연구’(關東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95, 29쪽.



같이 한달 전이나 열흘 전에 길일을 선택해서 행한다. 일반적으로 돼지, 뱀, 쥐날이 좋지만 그 중에서도 돼지는 ‘땅을 뒤 쪼어 엮는다’는 속성이 있어 돼지날을 선택한다<sup>19)</sup>. 이밖에 소를 액운이 없는 방향으로 머리를 향하게 한다든지, 먼저 원을 만들고 십자로 쟁기질을 하는 행위는 청해성의 토족(土族)과 같다. 이러한 의식은 쟁기질을 할 때 소와 사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보냄” 날에는 술가지를 대문에 걸어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며, 특히 부녀자들이 바깥출입을 하면 “쟁기가 부러진다”고 하여 삼가 한다<sup>20)</sup>. 전라도 지방에서도 소날(牛日)에 쟁기를 매워 시험삼아 몇 마지기의 논밭을 가는 의식을 한다. 소로 하여금 논, 밭 푹(방아리)을 밟혀본다는 의미에서 “소 방아리 붙인다”고 한다.

밭갈이 의식 중에는 나경(裸耕) 풍속이 있다. 우리나라의 관동, 관북지방에서는 정월 보름날 남근이 가장 큰 총각이 별거승이가 되어 목우(木牛)나 토우(土牛)를 몰고 밭을 갈아 풍년을 비는 습속이 있었다<sup>21)</sup>. 이와 유사한 의식은 중국 운남성 묘족(苗族)의 전통 그림에서도 볼 수 있으나, 그것과 한국의 관동, 관북지방의 나경(裸耕) 습속과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다(사진 4). 나경(裸耕)에 의한 풍속은 한국 대전에서 출토된 「靑銅器農耕紋」에서 따비질 하는 사람의 발달한 남근(男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사진 5). 이것을 통해 나경(裸耕)은 청동기시대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땅은 씨앗이 뿌려지면 곡식이 돌아나듯이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씨앗은 남자를 나타낸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애가 없는 남자에게 “씨앗 구실도 못한다”는 말도 이러한 뜻에서 생겨 난 것이다. 위의 자료를 통해 나경(裸耕)은 성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쟁기는 남성의 상징이고 밭은 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개간하지 않은 땅을 ‘處女地’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기우제에서 술을 머리에 인 여인에게 물을 뿌린다. 물을 뿌리는 것은 비가 내린다는 유감주술적 성격을 가지나, 여자는 토지를, 물은 정액을 나타내는 다른 상징적인 의미도 가진다. 그리고 예전에 술을 인 여인은 옷을 걸치지 않았다는 옛 분들의 고증에 근거하면, 신이 옷을 입지 않은 여인을 불결하다고 여겨 비를 내리게 해 줄 것이라는 의미도 가질 것이다. ‘미친년이 지탈하니 비가 오겠다’라는 말도 뿌린 물에 맞아 술을 인 여인이 이리저리 움직

19) 명나라 말기에 쓰여진 『致富全書』에는 같이와 관련된 길일(吉日)과 흉일(凶日)에 대하여 상세히 적고 있다. 구체적인 날짜는 다음과 같다.

· 길일(吉日) : 乙丑, 己巳, 庚午, 辛未, 癸酉, 乙亥, 丁丑, 戊寅, 辛巳, 壬午, 己酉, 丙戌, 丁亥, 己丑, 丙午, 癸丑, 甲寅, 丁巳, 己未, 庚申, 辛酉

· 흉일(凶日) : 大忌 - 初六, 二十二, 二十三

小忌 - 初八, 十一, 十二, 十七, 十九, 二十七

중국의 여족(黎族)들은 닭날, 말날에는 쟁기질을 하지 않는다. 또한 춘분(春分), 청명(淸明), 대서(大暑), 소서(小暑), 입추(立秋)에도 사람들에게 불리하다고 같이를 하지 않는다.

20)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강원도), 문화재관리국, 1977, 283쪽

21) 『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 정신문화연구원, 1990, 638쪽

이는 모습에서 생겨난 듯 쉽다. 하늘에서 내린 비에 의지해 농사를 지은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 비는 곧 풍년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녀의 성행위를 상징물 대신 부부가 직접 행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 안휘성(安徽省)에서 남녀가 씨를 뿌리고 밭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나, 해남도(海南島)의 여족(黎族)들이 벼가 열매를 맺을 즈음에 부부가 머리를 헝클어 서로 묶은 후에 마을의 냇가에서 머리를 감는 행위도 성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sup>22)</sup>. 우리네는 하는 일을 대충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귀기울이지 않는 이에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라고 말한다. 안휘성의 보리밭과 마찬가지로 ‘콩밭’도 성행위를 하는 장소로,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빗대어 말한 것인지도 모른다.

쟁기는 밭갈이 의식뿐만 아니라 건축의례에서도 쓰여진다. 광서성(廣西省) 묘족(苗族)들은 다른 성(姓)을 가진 자의 집을 사는 경우, 먼저 쟁기로 새집의 정원을 파헤친다. 사람들은 집터에는 주인을 보호해주는 용(龍)이 있으며, 새로운 집에는 새로운 주인을 보호할 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 쟁기갈이를 통해 예전에 있던 용을 나오게 하고, 새로운 용이 터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용이 새 주인에게 복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만약 기존의 용이 깃 든 터에 살면, 새로 온 집안 사람이 다치고, 재물이 나가는 등 불리한 일이 생긴다. 쟁기질은 마을에서 부와 덕망이 있고, 자손이 많은 사람이 대신 해준다. 소 또한 힘센 소를 찾고, 같이 때는 소뿔에 붉은 띠를 걸어 준다. 갈이는 해가 밝은 라천일(羅天日), 라천시(羅天時)에 하는 것을 제일 좋다고 여긴다. 정원을 갈기 전에는 제물을 차려 제사를 지내고, 갈이가 시작할 때는 폭죽을 터트려 잡귀를 쫓는다. 가는 방법은 위 아래로 세 번 왕복하고, 좌우로 3번 간다. 갈이가 끝나면 주위의 사람들은 주인에게 축원을 하며, 주인은 제사장을 불러 새로운 용이 안장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sup>23)</sup>. 정원에 깃 든 용은 우리네 ‘터주’와 같으며, 집안의 재물을 보호해 준다는 면에서 ‘업’과 같다.

#### 4. 이야기(故事) 속의 쟁기

1) 쟁기는 농가의 귀한 물건으로 남에게 도둑 맞기도 한다. 중국 산서성(山西省) 심원현(沁源縣) 지방의 고사에 따르면<sup>24)</sup>, 두 부자(夫子)가 먼 산에서 저녁까지 밭을 간 후 마저 갈지 못한 땅을 내일 갈기 위해 쟁기를 숨겨두고 갈 작정이었다. 멍청한 아들은 쟁기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큰소리로 숨겨둔 곳을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었으나 아버지가 대답이 없어 다시 큰소리로 말하였다. 아버지가 숨겨둔 곳을 확인하고, 아들에게 누군가가 알

22) 宋兆麟(中國歷史博物館 研究員) 제보.

23) 『中國少數民族民俗大辭典』, 上揭書, 258쪽

24) 沁源縣民間文學集成編委會, 『沁源民間故事集成』(山西省), 1989, 244쪽

면 안되니 큰소리로 떠들지 말라고 훈계를 하였다. 이튿날 밭에 도착한 후 아들이 쟁기를 되찾으러 갔으나 없어진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다가가 꺾속말로 쟁기 잊어버렸다고 전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아들의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먼 산에 숨겨둔 쟁기가 없어진 것을 보면 쟁기는 귀한 물건임이 틀림없다.

2) 쟁기는 부잣집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제주도의 무속 신화인 「세경본풀이」에 자청비가 서천에서 곡식 씨앗을 얻어 오는 중 하인이 배가 고프다고 한다. 자청비는 머슴 아홉이 소 아홉 마리를 거느리고 쟁기로 밭을 가는 곳을 가리키며 거기 가서 밥을 얻어먹으라고 이른다. 그러나 밥은 고사하고 옥만 먹고 돌아오자, 자청비는 그 마을에 흉년이 들게 하였다. 그 대신 하인이 쟁기도 없이 호미로 농사를 짓는 두 노인에게 밥을 얻어먹자 그들에게 풍년이 들게 해준다. 이 이야기는 쟁기를 가지고 농사짓는 부자 마을에서는 밥 한끼 즐만하나 인정 없이 모른 척 한 반면, 호미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가난한 집에서는 없는 양식도 함께 나누어 먹는 인정을 풍자한 것이다.

3) 쟁기질 할 때 소와 쟁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왕으로 추대되기도 한다. 옛날 요왕(堯王)이 왕위를 계승 할 사람을 물색하러 다니던 중, 한 농부가 소 두 마리로 열심히 밭가는 사람을 보았다. 농부가 간 밭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같은 깊이로 갈려져 있었다. 그런데 한 마루에 키가 걸려 있는 것을 꾀이하게 여긴 왕은 농부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농부는 황소가 지치었을 때 소 대신 키를 때린다고 답하였다. 또한 만약 소를 때리면 4무(畝)가 되는 밭을 갈 수 없다고 하였다. 요왕은 총명한 농부를 후에 왕으로 삼았다<sup>25)</sup>. 이 이야기에서 농민은 쟁기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고, 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요왕은 하찮은 동물에게도 사랑으로 대해주는 농민이 후에 왕위에 올라도 백성을 사랑으로 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이다. 소를 배려하는 일화는 우리네도 있다. 조선 세종 때 영의정인 황희(黃喜, 1363-1452)는 두 마리 소로 쟁기를 가는 사람에게 어느 소가 힘이 세냐고 묻자, 농부는 황희 곁으로 다가와 꺾속말로 검정 소가 황소보다 일을 잘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또한 소도 자기를 욕하면 싫어한다는 농부의 말에 감탄하였다는 정승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4) 쟁기는 홍수로 인해 넘치는 물을 제거하는데 썼다. 홍수로 인해 종자를 심을 수 없게 되자, 신체가 건강하고 힘이 센 아조(阿祖)는 자신의 힘센 물소를 이용하여 고랑을 만들어 그곳으로 물이 들어가게 한 후 보습으로 흙밥을 갈라 그 물을 가두었다. 갈라진 흙밥의 높이는 산 높이 만큼 높았다. 그래서 그는 썩레를 이용해 땅을 평정하게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미처 평정하지 못한 곳도 생기게 되었는데 오늘날 산이 바로 그것이다<sup>26)</sup>. 이 이야기는 쟁기와 썩레의 용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25) 臨汾市民間文學集成編委會, 『臨汾市民間故事集成』, 1989, 9쪽.

26) 馬昌儀編, 『中國神話故事』,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6, 156-157쪽.

5) 쟁기 다루는 기술을 이용해 남의 땅을 약탈하려는 욕심이 보인다. 도서선(陶瑞善)의 땅과 흑심낭(黑心狼)의 땅은 서로 붙어 있는데, 흑(黑)씨는 돈 한푼 지불하지 않고 도(陶)의 땅을 조금씩 먹으려고 하였다. 그 방법을 궁리한 끝에 봄에는 땅을 반만 갈고, 가을에 도(陶)씨네 쪽으로 흙밥을 넘겨 몇 년이 흐른 뒤에 그 땅을 모두 차지하려고 하였다는 이야기이다<sup>27)</sup>. 사실 흙밥을 넘기면 땅의 경계가 애매해져 땅의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없다. 실제로 민간에서는 논과 밭둑을 문제삼아 싸움을 벌리기도 했다.

6) 쟁기 벼은 욕심쟁이를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 어떤 부자가 쟁기질을 하는 일꾼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도록 아들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하였다. 따뜻한 봄 날씨에 깜박 졸던 아들은 쟁기의 벼이 번쩍이는 모습을 금으로 착각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도끼로 쳐서 박살내 버렸다. 아깝게 벼만 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벼은 사용할수록 빛을 발하기 때문에 거울에 빗대어 부르기도 한다.

7) 쟁기를 끄는 동물은 소나 말이 적당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토족(土族)의 젊은이가 힘든 동물을 이용해 쟁기를 끌기 위해 찾은 동물 즉 용, 들소, 황소들 가운데 황소가 가장 적당하여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sup>28)</sup>. 또한 개로 밭을 가는 동생에게 남쪽에서 온 사람이 말을 주었다는 이야기<sup>29)</sup>는 소나 말이 쟁기에 걸기에 적당한 동물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운남성(雲南省)에서는 양에게 쟁기를 걸어 끌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sup>30)</sup>.

8) 쟁기의 보습은 벽사(辟邪)의 기능을 가진다. 「도화녀투주공(桃花女鬪周公)」 줄거리 안에는 불로 달군 보습으로 땅을 파면 연기가 나서 귀신이 놀래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 5. 보습과 벼의 문구

오늘날 농기구에는 한, 두 글자의 문구를 새겨 만든 사람이나 지방, 공장 등을 표시한다. 이러한 풍습은 한대(漢代) 유적지에서 발굴된 농기구에서도 보이는 것을 보면 그 유래가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섬서성(陝西省) 농현(隴縣)과 함양현(咸陽縣)<sup>31)</sup>에서 출

27) 蜀舟, 俞航 編, 『中國民間智謀故事』,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6, 1-2쪽.

28) 馬昌儀編, 『中國神話故事』, 前揭書, 441-443쪽.

29) 陳子艾編, 『中國神話故事』,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6, 24-27쪽

『河南民間故事集』, 中國民間文藝出版社, 1985, 528-533쪽

‘밭 가는 개(狗犁地)’ 이야기는 중국, 한국 모두 알려진 것으로, 이야기의 전개과정은 같다. 단지 중국의 이야기에서는 남쪽에서 온 사람이 동생을 가엾게 여겨 말을 주지만, 한국의 이야기에서는 동생과 비단장수가 ‘개가 쟁기를 끄느냐’ 내기를 통해 동생이 승리하여 비단장수의 비단을 차지하게 되어 부자가 된다. 형이 욕심 부리는 행위이나 나무에서 재물이 떨어지는 줄거리는 한국과 중국 모두 같다. 한국에서 비단장수의 상징은 중국인을 가리키므로, 한국의 ‘밭 가는 개(狗犁地)’ 고사(故事)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30) 尹紹亭, 『雲南物質文化』(農耕卷上), 雲南教育出版社, 1996, 142쪽.

31) 李京華, 『漢代鐵農器銘文試釋』, 『考古』1974年第1期, 61쪽.

토 된 보습 뒤쪽에는 “천(川)”자가, 보습을 보호하기 위해 덧붙인 화관(鑕冠)에는 “하이(河二)”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쟁기의 보습뿐만 아니라 삽에도 “동이(東二)”“하이(河二)” 등의 문구가 보인다<sup>32)</sup>. 또한 하남(河南) 정주(鄭州) 철기 제조장 유적에서 발굴 된 보습 모형 틀에도 “하일(河一)”, 하남성 공현(鞏縣) 철 구조장의 보습에는 “하삼(河三)”, 남양(南陽) 보습 틀에는 “양일(陽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러한 문구에 대해 이경화(李京華)는 보습이나 농기구를 생산하는 곳의 이름을 적은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한서(漢書)·지리지(地理誌)』에 나오는 철 구조장의 지명과 보습 등에 적힌 글자와 관련성을 따져 보았다. 예를 들어 “하(河)”라는 글자는 하남군(河南郡, 現: 하남성 낙양(洛陽) 지구 동부와 개봉(開封) 지구의 남부)을 가리키는 글자이고, “일(一)”“이(二)”“삼(三)”이라는 글자는 하남군(河南郡) 철관소(鐵管所)에서 붙여준 구조장(鑄造場)의 번호(編號)로 보았다. 즉 “하일(河一)”은 하남군(河南郡) 정주(鄭州)에 있는 철 구조장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양(陽)”의 경우, 『한서(漢書)·지리지(地理誌)』에 “양(陽)”자가 들어가는 지명 중에 철관(鐵管)이 설치된 곳은 9군 데이다. 그 중 “양(陽)”이 새겨진 보습 틀은 하남성의 남양군(南陽郡)에서만 발견되었기에 “양(陽)”자는 남양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도 “천(川)”자는 철관(鐵管)이 있는 곳이 하남성 영천군(潁川郡)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리키고, “전(田)”자가 들어가는 곳은 람천현(藍田縣)과 광전현(廣田縣)이 있으나 아마도 람천현(藍田縣)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V자형 화관(鑕冠)이나 모형 틀에도 생산하는 곳이나 생산자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산둥성(山東省)<sup>33)</sup> 채무현(菜蕪縣) 서한(西漢) 유적지에서 발굴된 화관(鑕冠) 틀에는 “산(山)”·“범(汎)”, 하남성 민지(澠池)의 것에는 “민(睪)”·“민우(睪右)”·“강읍(絳邑)”·“강읍치좌(絳邑治左)”·“신안(新安)”·“신안우(新安右)”·“하양(夏陽)”·“양성(陽成)”, 남양(南陽)에는 “양일(陽一)”·“오년(五年)” 등의 자(字)나 문구가 음문(陰文)으로 새겨져 있다. “범(汎)”자와 “산(山)”

32) 陝西省博物館, ‘陝西省發現的漢代犁鑕和鑕土’, 『文物』1966年 第1期, 21-22쪽.

33) 서한(西漢) 무제(武帝) 때 전국에 설치된 50개의 철관(鐵官) 중 산둥지역에는 12 곳에 설치되었다.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濟南郡의 東平陵, 歷城 3. 齊郡의 臨淄 4. 東萊郡의 東牟 5. 千乘郡의 千乘 6. 太山郡의 嬴 7. 膠東國의 郁秩 8. 成陽國의 營 9. 魯國의 魯 10. 山陽郡의 山陽 11. 琅琊郡의 琅琊 12. 東平國의 東平.

산둥성(山東省) 이외에도 섬서(陝西), 사천(四川), 하남(河南), 산서(山西), 허북(河北), 안휘(安徽), 강소(江蘇), 감숙(甘肅), 호남(湖南), 요녕성(遼寧省)등에도 철관(鐵官)이 세워진 것을 보면 서한(西漢) 시대에 제철사업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京兆의 鄭 2. 左馮翊의 夏陽 3. 4. 右扶風의 雍, 漆 5. 6. 弘農郡의 宜陽, 澠池 7. 8. 9. 10. 河東郡의 安邑, 絳, 皮氏, 平陽 11. 太原郡의 大陵 12. 河內郡의 隆慮 13. 河南郡의 河南 14. 潁川郡의 陽城 15. 汝南郡의 西平 16. 南陽郡의 宛 17. 廬江郡의 皖 18. 沛郡의 沛 19. 魏郡의 武安 20. 常山郡의 都鄉 21. 22 東海郡의 下邳, 朐 23. 24 臨淮郡의 鹽濟, 堂邑 25. 桂陽郡의 桂陽 26. 漢中郡의 沔陽 27. 28 犍爲郡의 武陵, 南安 29. 蜀郡의 臨邛 30. 漁陽郡의 漁陽 31. 右北平郡의 夕陽 32. 遼東郡의 平郭 33. 隴西郡의 隴西 34. 楚國의 彭城 35. 廣陵國의 廣陵 36. 城陽國의 營 37. 中山國의 北平 38. 涿郡의 涿 (《文獻通考》卷15『征權考二』)

자는 성씨(姓氏)를 표기한 것이고<sup>34</sup>, “강읍(絳邑)”(現: 산서성 곡옥현(曲沃縣))·“양성(陽成)”(現: 하남성 등봉현(登封縣))·“하양(夏陽)”(現: 섬서성 한성현(韓城縣)) 등의 표기는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명문 중의 “좌(左)”, “우(右)”는 조위(曹魏)시기의 관영(官營) 표시이다<sup>35</sup>).

철제농구에 지명을 새기는 풍습은 관방(官坊,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주조장)에서는 송대(宋代)까지 지속되었고, 사방(私坊, 개인 소유)에서는 자신의 성을 새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대(元代)에 와서는 지명 이외에도 제작 당시의 연호를 새기었다. 예를 들면 “지원23년(至元二十三年)”“연우6년2월(延祐六年二月)”“지정13년(至正十三年)” 등등이다<sup>36</sup>.

보습뿐만 아니라 벼에도 글자를 새겨 놓았다. 산서성(山西省) 양성현(陽城縣)의 벼 공장에서 벼 앞면 우측에는 생산하는 곳, 좌측에는 쓰여지는 지방의 이름을 새겨 놓는다. 벼에 명문을 새겨놓는 풍습은 한대(漢代)에서도 볼 수 있다. 섬서성(陝西省) 함양현(咸陽縣)의 사다리꼴형(菱形) 벼 뒷쪽에는 “전(田)” 자가 새겨져 있고<sup>37</sup>, 하남성(河南省) 승지현(澠池縣) 한대(漢代) 유적지에서 발굴된 벼의 뒷면에는 “민(颯)”“민좌(颯左)”“민우(颯右)”“진우(津右)”·“주(周)” 등의 문구가 보인다.

당대(唐代) 유물인 산둥성(山東省) 조장현(棗莊縣)의 반달형 벼모형 틀(銅으로 됨) 가운데, 위를 중앙에는 “왕(王)” 자가, 아래 틀 우측에는 “수(水)”“화(火)”자가 양문(陽文)으로 새겨져 있다<sup>38</sup>. “수(水)”자와 “화(火)”를 같이 새겨 넣은 것은 음양의 이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금(金)원대(元代)의 벼 가운데 북경(北京) 순의현(順義縣)의 것은 중앙에 “만(𠂔)” 문양이, 내몽고 지역의 것에는 우측에 연꽃과 물고기 문양이 그려져 있고, 중앙에는 “□陽官造”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그림 3). 중앙의 문구는 ‘□陽 지역에서 만든 벼’이라는 의미이고, 만(𠂔)자나 연꽃, 물고기의 문양은 길상의 의미를 가진다. 하남(河南) 정주(鄭州) 지역의 벼 틀 뒷쪽에는 “二”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역시 관방(官坊)에서 붙여준 편호(編號)이다.

## 6. 쟁기와 농업 속담(農諺)

쟁기와 관련 된 농업 속담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같이 방법과 같이 시기에 관한 것이다<sup>39</sup>. 같이 방법에서는 심경(深耕)을 강조하고 있으며, 같이 시기에서는 가을같이(秋耕)를 중요시 다루고 있다. 쟁기와 관련된 속담에는 농민들의 풍년에 대한 소망과 성실한 생활태도·가치관 등을 엿볼 수 있다.

34) 山東省博物館, ‘山東省萊蕪縣西漢農具鐵范’, 『文物』1977年 第7期, 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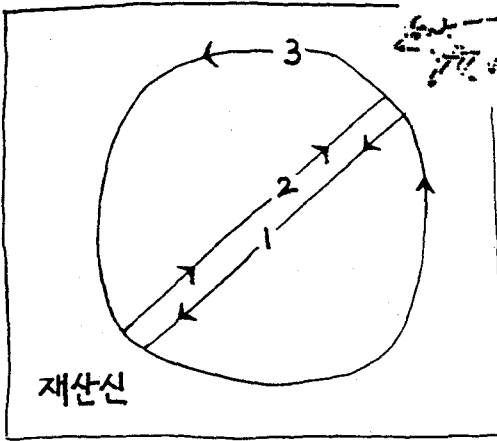
35) 澠池縣文化館, ‘澠池縣發現的古代窖藏鐵器’, 『文物』1976年 第8期, 50쪽.

36) 李京華, ‘河南古代鐵農具(續)’, 『農業考古』1985年 第1期, 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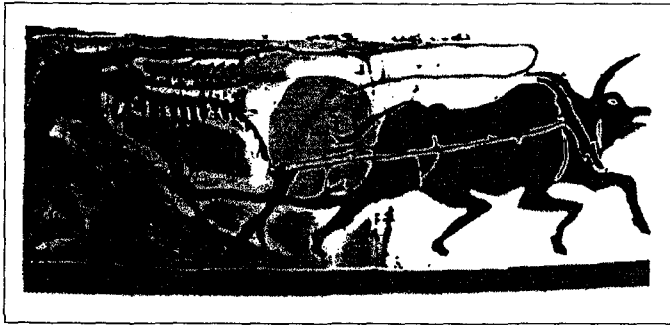
37) 陝西省博物館, ‘陝西省發現的漢代犁鏵和鏵土’, 『文物』1966年 第1期, 21쪽.

38) 李錦山, ‘山東棗莊出土犁鏡銅范’, 『農業考古』1984年 第1期, 57쪽.

39) 鄭然鶴, ‘犁與農諺’, 『民俗研究』1998 第3期, 28-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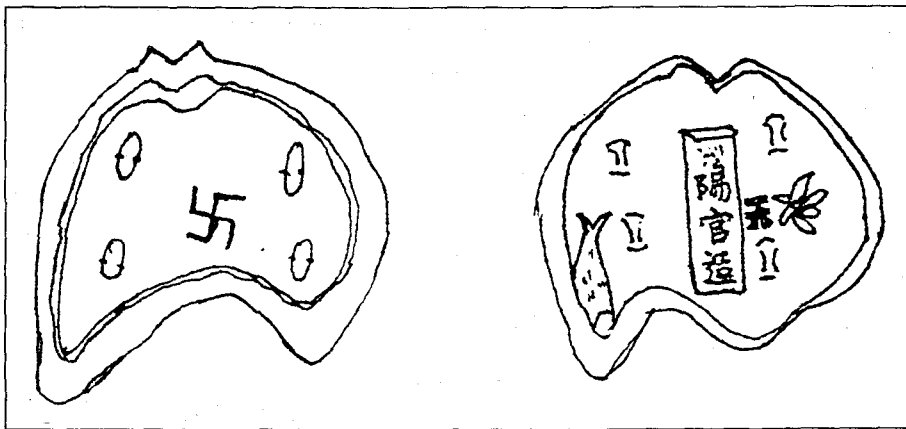
<그림 2> '같이 의식'에서 같이하는 순서(1→2→3).  
 원은 '통가리'를 나타내고, 통가리에 곡식이  
 가득차기를 바라는 의미임.



<사진 4> 운남성 묘족의 나경 그림



<사진 5> 「청동기농경문」(대전출토) 중  
 서 따비질 하는 모습. 남자의 생식  
 기를 큼직하게 표현하고 있음.



<그림 3> 북경 순의현(좌)과 내몽고 흑성지역(우)에서 발견된 원(元)·금(金) 나라 때의 벗.  
 길상의 의미를 만(卍)·연꽃·물고기를 새겨 놓음. (『考古』 63. 3, 『文物』 87. 7)

## 1) 부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勤勞致富)

농민은 자연에 의지해서 살지만 그렇다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된 노동을 통하여 더욱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쟁기갈이의 시기를 맞추고, 올바른 방법으로 갈이를 하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풍수(豐收)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를 이용해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풍수(豐收), 부유(富裕)를 상징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것이 금과 은이다. 금(金)과 은(銀)은 돈과 재산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단어이다. 농업 속담(農諺)에서 “황금을 얻었다”, “흙이 금(金)으로 변했다”, “금은(金銀)이 나왔다” 등의 표현으로 쟁기갈이를 잘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름(油)”이다. 예전부터 집안에 기름이 많고 적음은 부유함과 가난함을 평가하는 척도의 대상이 된다. 조금이라도 많은 기름을 얻고자 하면 열심히 일 할 것을 농업 속담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풍년(豐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만석(千萬石)”, “발왕(發旺)”이라는 단어를 썼고, 직접 풍수(豐收)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다.

생산량의 증감은 농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나락뒤주(圜)”에 곡식이 덜 차고, 생산된 곡물이 저울과 되(斗)에 적게 측량되는 되는 것은 가난한 농민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생활고(生活苦)이다. 농언에서는 “돈(圜)”, “두(斗)”, “근(斤)” 등등 생산량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 언제나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 2) 근면(勤勉)한 생활을 강조

어려운 자연환경에 부딪쳐도 성실히 쟁기갈이를 잘 하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농업 속담(農諺)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농업 속담에 사용한 단어 즉 “이기다(勝)”, “강하다(強)”, “두렵지 않다(不怕)”, “정상에 오르다(頂)” 등은 그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게으름을 피운다면 곧 후회하고,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경계의 말을 “후회(後悔)”, “원망(怨)”, “책망(怪)”, “한탄(喊)” 등의 단어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근면과 부유(富裕), 풍성한 수확은 농민의 현실과 이상을 각각 나타낸 것으로, 농민의 인생관과 철학관을 엿 볼 수 있다. “뿌린(노력한) 만큼 거둔다”는 말은 농민들의 인생관과 철학관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결 론

지금까지 쟁기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신앙·풍년 의례·보습과 벅의 문구, 그리고 이야기와 속담에 나타난 쟁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쟁기는 가장 중요한 농기구이자 전체 농기구를 대표한다. 또한 하나의 농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쟁기를 부릴 줄 아는 기술은 성년의 잣대로 삼았고, 쟁기는 혼수품·유산품·무역상품·장난감 등으로 쓰였다. 쟁기 자체는 남자의 생식기를 가리키며, 쟁기의 보습과 벅은 신앙물·악기·중약 등으로 이용되었다. 쟁기가 가른 땅의 깊이는 강우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였고, 입춘을 전후로 한 갈이 의례는 풍년을 기원하고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밖에도 쟁기는 세상을 풍자하고, 근면한 생활을 권고하는 도구로 썼다.

중국에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기원 전 7000년경이라고 본다. 장강(양자강) 하류지역인 절강성 영파(寧波)지역의 하모도(河母渡)유적지에서는 벼씨와 각종 농기구들이 발견되었다. 농사를 으뜸으로 친 우리 조상들은 중국으로부터 선진 기술을 받아들였고, 더불어 각종 농경의례도 받아 들였다. 중국 전지역에서 벌어진 갈이의식이 우리나라 강원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보이는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